DAY 29 · 3부 뭘 할 수 있나

수행평가 자료 조사, AI한테 얼마나 맡겨도 될까? — 자료 조사

하루 5분 AI 수업 · 2026년 10월 5일

찾는 일은 AI와 나눠 가질 수 있어도, 확인하는 일은 끝까지 내 몫이야.

한 줄로 말하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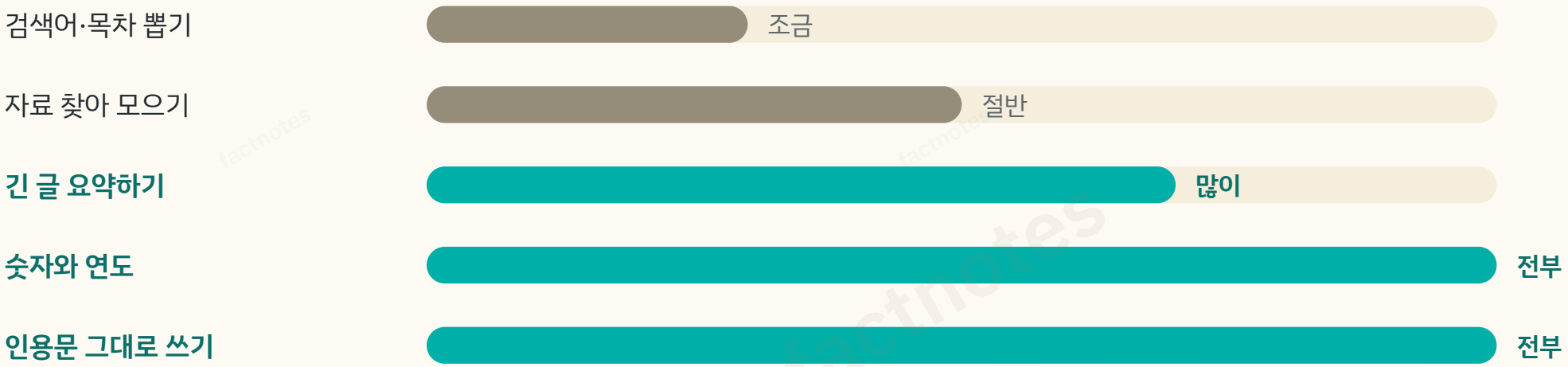
1. AI와 함께 조사하면 **시작이 빨라져**. 뭘 검색해야 할지 모를 때 검색어와 목차 후보를 금방 뽑아 주거든.

2. 대신 빨라지는 건 **찾고 추리는 앞부분**이야. 긴 글을 줄여 주고 흩어진 걸 모아 주지만, 줄이다 보면 원문에 없던 말이 섞이기도 해.

3. 그래서 숫자·연도·사람 이름·인용문은 **원문을 내가 눌러서** 확인해야 해. 2023년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AI가 만들어 낸 가짜 판례를 법원에 냈다가 벌금을 물었어.

그림 한 장으로

조각마다 내가 확인해야 할 몫



아래로 갈수록 틀렸을 때 표가 나고, 고치기도 어려워지는 조각이야.

핵심: 찾는 일은 나눠 가질 수 있어도, 확인하는 일은 나눠 갖지 못한다

실험 · 전후 비교

'우리 동네 하천이 왜 더러워졌나' 조사하기

1. 뭘 찾을지 정하기

전

검색어부터 막혀. '하천 오염'만 쳐 보고 한참 헤매다가 겨우 '생활하수'라는 낱말을 찾아내지.

후

'생활하수, 축산 폐수, 빗물받이 쓰레기' 같은 갈래와 목차 후보를 금방 늘어놔 줘.

여기는 틀려도 손해가 적은 조각이야. 어차피 다음 단계에서 자료를 보며 걸러지니까.

2. 긴 자료 추리기

전

20쪽짜리 보고서를 직접 읽고 밑줄 치고 옮겨 적어. 저녁 내내 걸리지만 내용이 머리에 남아.

후

같은 보고서를 붙여 넣으면 항목별로 정리해 줘. 대신 요약본에는 원문에 없던 문장이 섞여 들기도 해.

요약은 편하지만, 쓸 문장은 원문에서 다시 찾아 봐야 해. 못 찾으면 그 문장은 빼는 게…

3. 숫자와 인용 확인

전

통계는 발표한 기관 사이트에서, 인용문은 그 책에서 직접 확인해. 느리지만 틀릴 일이 거의 없어.

후

연도와 기관 이름까지 착착 붙여서 답해 줘. 문제는 그게 그럴듯하게 지어낸 것일 때도 있다는 거야.

2023년 미국 변호사 사건이 딱 이거야. 숫자·연도·인용은 예외 없이 원문을 눌러 확인…

조사 단계를 고르고 「혼자 조사」와 「AI와 함께」를 번갈아 눌러 봐. 막대는 '끝나고 나서 내가 다시 확인해야 할 몫'이야.

웹 수업에서 직접 해 볼 수 있어요 · next-token.net/learn/day-29/

확인해보기

세 문제만 풀어 보자

Q1 AI와 함께 조사할 때 가장 크게 빨라지는 부분은?

①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일
② 발표 때 대답하는 일
③ 검색어와 갈래를 잡는 시작 부분
④ 인용문을 정확히 옮기는 일

Q2 AI가 요약해 준 문장을 숙제에 쓰려면?

① 그대로 붙여 넣는다
② 친구에게 물어본다
③ 길이를 늘려서 쓴다
④ 원문에서 그 내용을 다시 찾아본다

Q3 숫자와 연도는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?

① 처음 발표한 곳
② AI의 답
③ 친구 발표 자료
④ 아무 블로그

왜 그런지까지 알고 가자

Q1

③

뭘 찾아야 할지 모를 때 갈래와 목차 후보를 금방 늘어놔 줘. 여긴 틀려도 다음 단계에서 걸러지니 손해가 적은 조각이야.

Q2

④

줄이는 과정에서 원문에 없던 말이 섞일 수 있어. 원문에서 못 찾은 문장은 빼는 게 맞아.

Q3

①

남이 옮긴 숫자는 옮기다 바뀌기도 해. 통계는 발표한 기관, 인용문은 그 책에서 직접 봐야 해.

오늘의 한 줄

찾는 일은 AI와 나눠 가질 수 있어도.
확인하는 일은 끝까지 내 몫이야.



내일은 공부 도우미 — 답만 달라고 할까, 풀이를 설명받을까.